

## ■ ( 언론 동향 ) 2021.12.2. "내일신문" 보도

### ○ 농업용 원자재 공급망 붕괴, 가격 폭등 우려

- 요소비료 내년 영농철 고비 ... 제조제도 중국 수출 제한으로 수급난
- 농가부담 늘어나 ... 정부는 탄소중립 농정으로 화학비료 지원 소극적

농업용 원자재 공급이 불안하다. 중국발 요소 공급망 축소가 장기화하고 있어 내년 영농철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용 요소비료 수급난에 이어 제조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내년 농가의 비료비와 영농자재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 비료공급자문위원회를 열었지만, 농가 부담과 정부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요소 비료의 내년 1~2월 공급량을 9만5000톤까지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상 수요량은 4만4000톤으로 이미 충분한 공급량이다. 하지만 영농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3~4월에는 요소 비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비료협회 등은 내년 농번기 요소 비료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요소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내세우며 화학비료 저감을 농정 기조로 정해 놓았다.

이 때문에 이번이 요소비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요소 비료는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학비료로,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단백질의 바탕이 된다. 효과가 빠르고 물이나 땅속에 잘 녹지만, 환경오염 주범으로 꼽히기도 한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박홍식)은 "탄소중립이라는 인류사적 과제와 동시에 식량난 극복 또한 인류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고, 현재 적정 화학거름 사용은 식량 증산을 통해 식량안보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적정한 화학거름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비료가격 폭등에 따른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 김성배 기자 >